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March 28, 2019 Vol. 665



올해 '국가 기도의 날' 모임은 5월 2일 오후 7시 30분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열린다. 기자회견에서의 교계 지도자들.

'한국과 미국' 위해 올해도 기도한다

5월 2일 나성순복음교회서 '국가 기도의 날' 교계 연합해

남가주 지역 한인들이 올해도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국가 기도의 날(National Day of Prayer)'에 동참해 연합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매년 5월 첫째 목요일에 열리는 국가 기도의 날은 미국 전역의 크리스천들이 미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다.

제68회를 맞이한 올해 기도회의 주제는 "LOVE ONE ANOTHER"이다. 올해는 미 전역 4만 7천여 곳에서 이 행사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남가주 지역 한인들은 미주성시화운동본부와 나성순복음교회가 중심이 되어 5월 2일(목) 오후 7시 30분 나성순복음교회에서 기도회를 한다. 이 행사에는 남가주교협, 남가주목사회, OC교협, OC목사회 등도 공동주최로 참여한다. 올해 기도회는 미국의 회개와 부흥, 가정과 학교, 교회와 문화, 사회 정의 등을 위해 기도하고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 장관들, 연방대법관을 비롯한 판사들, 연방의원, 주의원, 군 지도자와 캘리포니아 주지사, LA시장, 시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국가 기도의 날은 원래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지만 남가주 한인들은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할 예정이다.

진유철 미주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이다. 이번 기도의 날 행사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에 한국의 영성을 가지고 기도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의미 있고 복 있는 날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토마스 맹 기자

Z세대, 도덕적 · 종교적 기준 없는 혼돈 ...전도의 걸림돌

미국에서 떠오르고 있는 신세대인 이른 바 'Z세대'가 도덕적·종교적 이슈에 대한 확신 부족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것이 전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0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 단체인 'Cultural Engagement and Immersion at Impact 360 Institute'의 조나단 모로우 대표는 최근 달라스 신학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이같이 전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변증 및 세계관을 교육하는 모로우 대표는 "Z세대 학생들과 오늘날 신앙과 도덕적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혼돈"이라고 답했다.

모로우 대표는 "바나그룹에서 일하며 청년들의 종교와 도덕에 관해 연구를 했었다. 당시 연구에서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잘 모르겠다' 였다. 이들은 이슈들에 관해 뭐라고 말해야 할 지 모르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4면에서 계속]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는 TRACS로부터 기독교 상담학 학사 및 석사과정 인가 받고 3월 21일에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그레이스미션 기독교상담학 학·석사과정 TRACS 인가

풀러튼에 위치한 그레이스미션 대학교(GMU, 최규남 총장)는 미국 기독교대학/대학원협의회(TRACS)로부터 기독교 상담학 학사(Bachelor of Arts in Christian Counseling, BACC)및 석사(Master of Arts in Christian Counseling, MACC) 과정을 승인받고 3월 21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학위과정 승인으로 한인 신학대 최초로 총 8개 학위과정을 인가받는 쾌거를 이뤘다. 플러튼에 위치한 이 대학 도서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최규남 총장은 "한인신학교 중 최초로 8개 정식 학위과정 습득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며 "학교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됨에 따라 전 세계 선교사들에게 질 높은 신학교육을 통해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GMU는 성경,주경,조직,역사,실천,선교신학을 복음주의 관점에서 체계화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이번에 인가 받은 기독교 상담학 학사와 석사과정은 실천신학의 한 분야"라며 "캘리포니아주 뿐 아니라 미국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독 치료 상담사를 복음주의 신학적 바탕 위에서 기독교 상담학자와 상담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새롭게 인가 받은 BACC와 MACC 과정은 정부 학자금 보조를 지원할 수 있고,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수업 방식이 제공되며 수업을 영어나 한국어로 선택해 들을 수 있다.

특별히, 4월 한달 동안은 학교 홈페이지(gm.edu)에서 학교 입학 정보 요청 코너를 통해 관심 있는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후 온라인으로 입학 원서를 접수할 경우 입학 시 납부하는 입학금 $80을 면제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제임스 구 행정처장이 학교 현황 및 시설을 설명했다.

약 29,400권의 장서를 보유한 도서관과 교실 6개, 채플실, 콘퍼런스실, 학생휴게실과 온라인 교육을 위해 강의 녹화 시스템 및 생방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데이터 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2019년 봄학기 현재, 캠퍼스 재학생 183명, 온라인 재학생 77명으로 총 260명이 등록돼 있다. [3면에서 계속]

Spectrum BUSINESS | TIME WARNER CABLE
교회, 사업체에서 한국과 같은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스팩트럼에서 획기적인 속도와 가격으로 고객 여러분을 모십니다.
Sale
인터넷 100Mb + 미국, 캐나다 무제한 전화
$74.98 a month
NO Contract!
인터넷 200Mb/300Mb 한달도 가능합니다.
타 회사 위약금 발생시 최대 $500까지 보상합니다.
Sang Park (한인 매니저) | T.(562)916-5191 Sang.park@charter.com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및 자선,비영리단체는 특별한 가격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이니라
▪주일예배 : 오전 6:00 /11:00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수요예배 : 오후 5:30
▪금요예배 : 오후 5:30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 (213)364-7289, (213)605-1983

월드미션대학교
" 간호학과 (RN to BSN) 개설 "
2019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 8월 26일 개강
• 18개월 과정
• 자격 : RN 라이센스 소지자 (Visa screen시 영어 점수 면제)
• 학비 : 18개월 $12,000 (분납 가능)
• I-20 발행 (졸업 후 OPT 가능)
• ABHE 인가
• 학생중심 학습 : 교수와 학생 1:1 멘토 시스템
• 온캠퍼스 및 온라인 교육
• 우수한 교수진 : Evidence-base 교육
• 미 정부 Financial Aid 및 학비 융자 가능 (유자격자)
6월 30일 이전 등록시 입학금 ($300) 면제
문의
500 Shatto Place, Los Angeles, CA 90020 • www.wmu.edu
Tel : (213) 388-1000 • E-mail : info@wmu.edu
* 본 대학 입학시 교양학, 신학 학점이 미비한 경우 추가로 이수해야함
WORLD MISSION UNIVERSITY
TRANSFORMATIONAL BIBLICAL EDUCATION



남가주교협은 24일 주일 오후 예배에서 이사회를 새로 선임했다.

남가주교협, 이사회 새로 선임해

남가주교협(회장 한기형 목사)은 24일 주일 오후 예배에서 이사회를 새로 선임하고 임원진과 각 위원장들과 함께 상견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교협에 따르면 이날 모임은 김향로 이사장 자택에서 이뤄졌으며, 1부 예배에서 김태열 총무 이사의 사회와 부회장 김성대 목사의 기도, 교협 중창단의 특송, 회장 한기형 목사의 설교, 오렌지카운티 원로 목사 회장 김영대 목사의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회장 한기형 목사는 설교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이웃을 섬기는 자가 잘사는 자"임을 강조했다.

2부 사회는 총무 안신기 목사가 진행한 가운데 회장 한기형 목사의 임원진과 각 위원장 소개, 이사장 김향로 장로가 이사진을 소개한 후 친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앞으로 있을 부활절연합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새로운 이사로 선임된 이은용 장로의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남가주 장로 협의회가 멕시코 티후아나에서 의료 및 미용 봉사로 주민을 섬겼다.

남가주장로협, '멕시코 선교'

지난주 토요일인 3월 23일 남가주장로협의회에서는 멕시코의 멕시칼리 인근 티후아나 지역 김규식 선교사의 교회를 방문해 의료 및 미용 봉사를 통해 지역주민 약 120명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

남가주장로협의회에서는 하기언, 김용식, 김영균, 박남수, 박명언, 이한옥 총 6명이 참석해 김규식 선교사와 조성현 목사에게 선교비를 전달했으며 이민희, 이제니, 윤동주 한의사가 한의 봉사를, 최영훈, 박제임스, 박명순, 김득원, 김은준 의사가 의료 봉사를 했으며 최인희, 이우연, 이현숙 씨가 미용봉사로 지역주민을 섬겼다.

문의: 213-598-7596(김영균 장로)

"예수님" 부르며 깨어난 딸 통해 하나님 만나

장종택 목사, 미주장신 봄 신앙사경회 이끌어



미주장신대는 3월 19일 장종택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신앙사경회를 개최했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미주장신대)는 3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찬양 사역자 장종택 목사를 강사로 초대해 신앙사경회를 개최했다.

장종택 목사는 '은혜로다', '다윗처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등 자신이 작곡한 곡을 부르며 삶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증해 참석자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다.

장 목사는 19일 오전, 오후, 저녁 세 차례의 집회에서 각각 '일하시는 하나님'(눅4:38~39), '허언증'(삼상 2:35), 그리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은'(시 16:2)이라는 제목으로 사경회를 이끌며 일상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난치병으로 죽음 직전에 이르렀다가 "예수님, 예수님!"을 부르며 깨어난 딸 온유를 통해 만난 하나님을 생생하게 전했다.

미주장신대 이상명 총장은 "신학도의 최종 목적지는 진리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대로 살아가며 진리의 본질을 살려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사경회를 통해 재학생, 동문 및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을 제대로 붙들고 있는지 점검하고 말씀 위에 자신을 온전히 세우는 시간을 갖고자 했다"라고 이번 신앙사경회의 취지와 바람을 밝혔다.

미주장신대학교 채플실에 참석한 100여 명의 재학생, 교수, 일반 참석자들을 비롯해 해외 20여 개국의 원격교육원 재학생들이 이번 사경회에 참석해 삶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시니어센터 3월 27일 새학기 접수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이사장 이영송)는 2019년 두 번째 학기인 4월~6월 프로그램 접수를 시작한다.

반드시 사전 접수해야 참가 가능하며, 각 프로그램 별 선착순 마감하며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새 학기 접수는 3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3일 동안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시니어센터 2층 강당에서 받으며 선착순 마감이다.

시니어센터는 여러 전문인 협회를 통해 총 37개 프로그램을 모두 무료로 진행한다. 라인댄스, 요가, 스패니쉬, 영어, 중국어, 포토샵, 사진, 시네마천국, 동영상 편집, 음악, 아트 클래스, 세라믹 공예, 한국 현대 역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주말학교인 LA미래대학에서 인기리에 펼쳐지고 있는 영어말하기, 미국본토영어, 스마트폰 교실, 라인댄스가 이번 학기에도 계속된다. 이와 함께 뱅크카드서비스(대표 패트릭홍)가 제공하는 모닝 커피 봉사도 계속 이어진다. 시니어센터 측은 뱅크카드 서비스에 대해, "지난 2015년 2월부터 올 3월까지 4년 2개월 동안 매달 한 차례씩 총 50회에 걸쳐 총 $1만불을 기부했다. 시니어센터는 매일 아침 어르신들에게 커피를 제공하고 있다. 나눔과 연대를 실천하는 기업으로써 진정 커뮤니티의 으뜸임을 재확인한다"고 전했다.

위치: 시니어센터 2층 강당(965 S. Normandie Ave. #200, L.A. CA 90006) **문의: 213-387-7733**



시니어센터 스마트폰 수업 장면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ACCREDITED CHARITY bbb.org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 714.738.1234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1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Inc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신학교 인가(TRACS, ATS)
•BPPE 신규 및 재승인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16992 Rudeen Lane, Fontana, CA 92336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당뇨의 근본적인 치료
비만의 개선
Cyclo-Z 세계최초 당뇨치료를 위한 생약제재
전립선 질환 개선 및 알츠하이머의 예방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이 없으며 빠를수록 좋습니다.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진다.
프로지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43%(하지절단) 37%(미세혈관합병증)등이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PRO-Z Glucose Control 60 capsules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 전화 213.434.1170
3020 Wilshire Blvd. #160, LA, CA 9001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LA비전교회가 창립 9주년 감사예배를 24일 오후 4시에 거행했다.

LA비전교회 창립 9주년 감사 예배 드려

'에벤에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적 성숙으로 이끌어 주셔"

LA비전교회가 창립 9주년 감사예배를 24일 오후 4시에 거행했다.

LA비전교회 김대준 담임목사는 '에벤에셀의 교회'(사무엘상 7:12-14)이란 제목으로 한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9주년까지 인도하셨다. 교회 개척시에 학교 강당을 빌려 예배 셋업을 하면 다 정리하고 예배를 드려오면서, 새벽예배도 드릴 공간이 없었지만, 어느 분이 공간을 제안해서 쓰게 되고, 지금 여기 공간도 LA사랑의교회에서 쓰던 공간이 나오게 돼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라며 "제가 중국에서 추방을 당해서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 어느 권사님 집에 머무르면서 새벽기도를 시작으로 교회를 하게 됐다. 또 방학 동안 17명의 학생들이 헌신하겠다고 교회 사역을 도우러 LA에 오는 일 등 지난 9년간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했다.

김 목사는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영적인 성숙으로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자"라면서,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배는 교회 구성원들이 모든 순서를 맡아 진행했는데, 이에 대해 김대준 목사는 "외부 목회자에게 순서를 부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2부 축하시간에는 교회 셀 모임에서 특별찬양과 연주를 통해 기쁨과 은혜를 나눴다.

토마스 맹 기자



소망 소사이어티 제 1회 건강 콘서트

소망소사이어티 제 3회 건강 콘서트 연다

소망 소사이어티가 주최하고 카이론 토탈이 후원하는 제 3차 소망 건강 콘서트가 4월 6일(토), 오전 10시 30분에 소망 소사이어티 소망홀에서 열린다.

건강콘서트는 육체의 건강을 위한 전문가의 건강 세미나와 마음의 건강을 위해 음악을 접목시킨 프로그램으로 한인커뮤니티의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지난 1차 건강 콘서트에서는 '암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 라는 주제로 김의신 박사가 강의했으며 2차 건강 콘서트에서는 UCI 방문교수인 편성범 교수(서울 고려대 의과대학)가 '건강한 뇌, 즐거운 노년'이란 주제로 뇌와 관련된 질환들에 대해 강의했다. 이번 강의는 임상심리학자인 존 박 박사가 '노인성 우울증에'에 대해 강의한다. 노인성 우울증의 정의, 관련 증상들 및 예방법에 대한 다룬다.

이후 Sing Along은 소망 소사이어티의 임정훈 실장이 인도한다.

카이론 토탈의 후원으로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강의에 참석을 원할 경우, 소망 소사이어티 사무실(562-977-4580)이나 이메일(somang@somangsociety.org)로 사전 예약을 하면 된다.

인랜드 교회 담임목사 위임 예배



안환 목사

PCA 한인 서남노회 소속 인랜드교회는 3월 31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교회 본당에서 PCA 서남노회 전권위원회 주관으로 안환 담임목사 위임 예배를 드린다.

주소: 1101 N. Glen Ave, Pomona, CA 91768
문의: (909) 622-2324
웹사이트: http://inlandchurch.org/

제7기 목회자 가정선교세미나

성화장로교회는 5월 4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7기 목회자 가정선교 세미나〉를 개최한다.

미주 가정선교회는 "수많은 사회문제들이 가정의 갈등에서 비롯된다. 가정의 문제는 곧 교회의 문제이고 교회의 문제는 곧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가정이 파괴 되지 않도록 가정을 지키고, 파괴된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복음화하는 것이 가정 선교의 목적이다. 가정선교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이며, 시대적 요구에 대한 기독교적 응답이고, 모든 가정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며 시발점이고, 세계선교의 출발지이자 도착지이다"라고 이번 세미나의 의미를 설명했다.

미주 가정선교회 대표인 이재근 목사가 강사로 나서 '가정선교'와 '가정문제의 해결방안' 2가지 주제로 2시간씩 강의할 예정이다. 대상은 목회자(목사,선교사,전도사)부부이며, 참가비는 무료이나 선착순 30부부로 참석이 제한된다. 참가신청은 이메일(jaekunlee00@hotmail.com)이나 전화(562-714-0691)로 하면 된다.

이번 세미나는 미주 가정선교회가 주최하고, 남가주한인목사회, OC한인목사회, 목회자아버지학교, 재미부흥사협회가 후원한다.

문의: 이재근 목사: (562) 714-0691



3월 21일 목요일에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가 채플실에서 개강예배를 드렸다.



[1면 '그레이스미션 기독교상담학학사, 석사과정 TRACS 인가 '에 이어서] GMU학생이 되면, '통신으로 학위 취득 가능', '유학생 I-20' 발행, 연방정부 장학금 및 학자금 융자, GMU 학교 장학금 수여, 미국 유수 학교들과의 학점 교류, 복음주의 신학 커리큘럼과 뛰어난 교수진, 영어권 학생들을 위한 영어 트랙 등의 특권이 주어진다.

"견실한 인격, 강한 군사, 세계 선교"를 모토로 하는 그레이스미션대학교는 학생들이 풍부한 학문적 소양과 영적 능력을 갖추어 예수님을 지상명령의 성취하기 위해 1995년에 설립되었다. 이 학교의 70%가 현역 선교사, 목사, 저도사, 평신도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GMU는 미국 고등교육이 인정하는 기독교대학, 대학원 인가 기관 ATS, ABHE, TRACS의 정회원으로 GMU에서 학위를 받으면 이 인가 기관들의 회원학교의 고급학위 과정을 추구할 수 있다. 한편, 이 대학은 LA 지역 학생을 위한 LA 익스텐션 수업도 진행하고 있다.

문의 및 상담은 전화(714-525-0088)이나 홈페이지(www.gm.edu), 이메일(행정: gmu@gm.edu, 입학: admissions@gm.edu)로 하면 된다.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기쁜우리교회
담임목사 김 경 진
Senior Pastor Rev. Gyeong Jin Kim

2019-2020 학년도
장학생 모집 공고



www.joyfulccc.org

기쁜우리교회 장학위원회 (Scholarship Committee of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에서
크리스천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 2기 기쁜우리교회 장학생들을 다음과 같이 선발합니다.

■ **신청대상** – 목회자 또는 선교사 자녀 (PK & MK Scholarship)
– 일반 대학(원)생 (General Academic Scholarship)
– 신학생 (Seminary Scholarship)

■ **선발 인원** – 00명

■ **선발 일정** – 신청서 접수기간 : 2019년 3월 17일 ~ 4월 28일
– 선발 결과 발표 : 2019년 7월 14일 예정
– 장학금 수여식 : 2019년 8월 11일 예정

■ **신청방법 및 구비 서류** – 기쁜우리교회 홈페이지 www.joyfulccc.org를 통해 안내 받으시고 원서접수를 scholarship@joyfulccc.org로 하시거나 아래 주소로 우편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ATTN : Scholarship Committee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P.O.Box 270, Glendale, CA 91209

기쁜우리교회 장학위원회 (Scholarship Committee of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105〉

세계선교영적 동맹: 글로발 얼라이언스



이 상 훈 목사
주비젼교회 담임

필자가 섬기는 인터콥선교회에서는 매 2년마다 한국 상주에 위치한 선교회 본부 열방센터에서 전 세계 선교 지도자들이 모인 "글로발 얼라이언스 컨퍼런스"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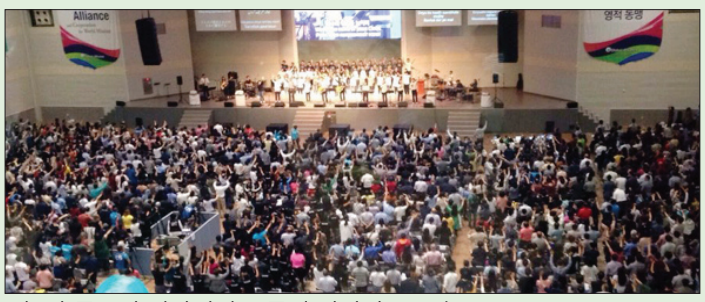
올해는 제 5회를 맞고 5월 1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다. 미주에서 참석하시는 여러 목사님들께서 이 좋은 선교 컨퍼런스를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권하여 이 지면을 통해 소개하려 한다.

필자는 매회 글로발 얼라이언스를 참여하며 세계선교는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Misio Dei)'임을 확신한다. 지난 4회 때에는 64개국에서 약 3,500명의 선교 지도자들이 모였다. 개회예배 때부터 선교비전과 각국의 선교 보고 등을 그 나라 지도자들에게서 들으면서 4일 내내 감동과 소망으로 눈물과 기쁨이 넘쳤던 기억이 난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위로는 터키 아래로는 이집트 옆으로는 요르단 그리고 주변에 가득 차 있는 중동 아랍권 지역의 무슬림 나라들 안에 불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때이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주님을 대적하려는 악한 사탄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의 때임을 선교 지도자들은 이미 선포했다.

과거 20, 30년전만해도 기독교의 나라라고 자처했던 유럽의 나라들을 포함, 미국도, 한국도 그 안에 무슬림을 포함한 다양한 우상의 종교들이 교회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세계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한다. 혼자의 힘으로 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계선교의 비전을 향하여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손을 잡아야 할 세계 선교 영적 동맹이 일어나야 한다. 물론 여러 선교 지도자들의 노력을 통해 영적 동맹의 모임은 다양한 방법과 모습으로 각지에서 열리고 있다. 너무도 귀하고 좋은 일이다. 그 중에 하나가 세계 영적 동맹인 "글로발 얼라이언스 컨퍼런스"다. 각 교단, 교파를 초월하여 미주 안에 있는 목사, 선교사 등 세계선교의 영적 동맹에 마음이 있는 분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대한다. 모든 참가비는 면제이다. 필자는 확신한다. 이 모임에 참여한 것이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 되어 질 것이다. 남은 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의 영향력 있는 귀한 영적 지도자들과 선교적 네트워크가 생길 것이다. 세계 각국 선교사들의 선교보고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눈을 뜰 것이다.

그리고 필자와 같은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저 귀한 성도들을 앞으로 어떻게 양육하고, 인도할 것인가의 명확한 하나님의 답을 얻게 될 것이다.



제4회 글로벌 얼라이언스 국제 컨퍼런스 모습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 행 인 : 이인규 **이 사 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성도가 행복해야 할 이유들



강 태 광 목사
월드쉐어 USA

'성경은 행복학 교과서'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행복의 원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행복을 몹시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복의 비결을 알려 주시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들의 행복을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온갖 축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원한 행복(영생)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성령님도 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성경이 소개하는 축복과 은혜들은 우리들의 풍성한 삶(행복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성경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규례와 명령들 그리고 권면들이 하나 같이 우리들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들이요 하나님의 권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의 가르침들을 잔소리로 이해하거나 인간들의 행복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유익, 즉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들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들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림"에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규칙들이 약간 까다롭고 어려워 보여도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안내임을 믿고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이 마음가짐이 성경적 행복을 누리는 지름길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자제품의 사용 설명서가 난해하고 불편해도 그 사용설명서대로 사용해야 전자 제품을 효과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행복하려면 행복 교과서인 성경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조금은 까다롭고 불편해도 매뉴얼대로 사용해야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길을 따라가야 바른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따라 살면서 참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야 할 이유들은 많습니다. 먼저 성도들이 행복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명령으로 가득합니다. 성도는 이런 명령들을 지켜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려면 성도들은 반드시 기쁨의 삶을 살면서 행복해야 합니다. 성도의 행복지수는 성도의 순종지수와 비례합니다. 둘째, 성도들이 행복해야 할 이유는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에덴동산의 관계와 영성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타락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타락이전 에덴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참된 자유를 구가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28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행복을 상실했습니다. 구원은 상실한 관계와 행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참된 행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와 교류를 누리는 것이 행복이요 성숙입니다. 성도들이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셋째, 성도들이 행복해야 할 이유는 복음증거를 위해서입니다. 성도의 행복은 불신자들을 향한 천국 초청장입니다. 성도들이 행복할 때에 전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행복을 복음전도의 통로로 보아야 합니다. ("Christians must see their Happiness as ally for spreading the Gospel") 신앙생활의 기쁨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웃에게 신앙생활을 권할 수가 있을까요?

위대한 설교가 죤 스펄죤은 '행복한 성도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펄죤의 설교를 분석한 학자들에 의하면 스펄죤의 설교중에 행복(Happiness) 혹은 행복한(Happy)라는 말이 23000회 정도 사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성도의 행복한 삶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지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성도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복을 원하시고, 행복을 보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복의 조건들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유명한 성결교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은 "태평양의 고래가 목말라 죽는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물으며 풍성한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질타하였습니다. 이 질타는 불행해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태평양의 물처럼 많은 행복의 조건들을 갖고도 행복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성경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행복해야 할 이유가 풍성합니다.

[1면에 'Z세대' 이어서]

그는 "이들이 물려받은 세계는 '도덕과 영성에 관한 질문에 대한 진정한 답은 존재하지 않아'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심판자가 되고 싶어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벌을 부과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들은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실제를 결정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가르침을 받고 자란 세대이다. 이것은 이미 정해진 값"이라고 했다.

이어 "심지어 기독교인 그룹을 조사할 때에도, 대부분 '그렇지만 그것은 마치, 당신도 알다시피, 내 생각에는, 그게 바로 내가 믿는 바야' 등과 같은 상대적인 진술이 많았다"우다. 둘째, 신앙에 대한 의심을 갖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다. 가족들과 교회에서 궁금한 것을 물을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의심이 계속 자란 것이다."

지난 1월 라이프웨이 연구소가 최소 1년 동안 개신교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는 10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분의 2 가량이 "성인이 된 후 최소 1년 동안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대학교 이동(34%)이었고, 정죄하고 위선적인 교인들(32%)이 뒤를 이었다. 더 이상 교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29%) 등도 있었다.

창설 15주년 및 사무실 이전 감사예배



권태일 목사
월드쉐어 설립자

국제 구호 NGO **World Share USA**가 창설 15주년과
사무실 이전을 감사하며 아래와 같이 감사예배를 준비하고
정중히 초대합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일시 2019년 4월 25일(목) 오후 5:00
장소 아로마 윌셔센터 5층 대연회장
3680 Wilshire Blvd. 5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내용 찬양예배, 축하행사, 만찬

Miracle! You can make it World Share

* 원활한 행사 준비를 위해 테이블 리더 혹은 강태광 목사에게 4월 20일(토)까지 참석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orld Share USA
3020 Wilshire Blvd. #160, LA, CA90010

▪ 행사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포도원의 열매없는 무화과

누가복음 13:1-9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본문 누가복음 13:1-9

1 그 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2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3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4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5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6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7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삼 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8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9 이 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어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힘은 어찜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질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사5:1-7)"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포도원과 같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에서 극상품의 포도열매를 기대하셔서 그 포도원을 위하여 최선의 관리를 했음에도 들 포도가 맺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5:5-6같이 결단하시고 이스라엘 족속의 배은망덕함에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회개한 일이 없고 거듭난 일이 없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성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는데 도리어 죄악으로 치닫는 일만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시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촉구했음에도 그들은 회개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 짓밟히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예로 누가복음 13:1-9말씀은 갈릴리에서 짐승을 잡아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는 제물을 갖추어 제사를 드리는데 빌라도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이스라엘 사람 두세 사람을 칼로 쳐죽이고 제물로 차려진 짐승의 피에다가 빌라도가 죽인 사람들의 피를 섞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빌라도 충독이 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시키신 일로 귀착되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승만도 못하게 엉망진창으로 사니까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그 일이 원통하고 분해서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십니다.

빌라도가 동족을 죽였다고 분개할 처지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보실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으로 살기를 애쓰고 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철저히 회개하여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보살피시고 인도히심 받아 살기를 힘쓰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살아가고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회를 만들어 주셨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으니까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롬2:5)"하셨습니다.

4절에서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5:1-7말씀과 같이 이 교회도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진리정통한 말씀으로 가꾸어 오심으로 여러분들이 모두 극상품의 열매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들 포도만 맺어드리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허물어 버리실 수 있다는 경고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포도원은 예수님을 바탕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하늘 소망을 가꾸는 곳입니다. 즉, 교회를 의미합니다. 과원지기는 교회의 목회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 열매맺는 생활을 하기를 애타게 기다리심에도 열매없는 생활이 계속된다면 하나님은 그 나무를 찍어 내어 버리라고 하십니다.

목자는 다음과 같이 간청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 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어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이제 남은 시간동안 열심히 전도함으로 그들이 생명의 길로 동행할 수 있도록 도우며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함으로 하나님 앞에 흐뭇한 영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과로 인하여 흐뭇함을 얻으시면 기대가 새로워지고 관심과 대접도 확실히 달라져서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1:8-19에 열매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매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죽었습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해 보이시며 믿음의 회개와 영적 소망을 위한 중생(重生)의 진리를 애타게 선포하며 믿을 만한 증거로 이적기사를 통한 표적(表蹟)을 나타내 보이셨지만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배척할 뿐 아니라 로마의 총독 빌라도까지 협박하고 강요하여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혀 죽게 할 것이기에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죽게 할 것이기에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며 배척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저주와 멸망을 재촉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1:13에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 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는 6월에 열매가 맺히고 7월 하순부터 익어 먹을 수 있는데 잎만 무성한 무화과가 열매 없다고 죽게되는 사건은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육신의 욕구적 조건을 화려하게 살면서 영적 소망이 없고 또 영적 성과도 없게되면 저주로 멸망하게 될 것을 예고하신 교훈일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의 죽음이나 예루살렘 망대에 치어죽은 18명에게도 죽기 전에 필경 여러차례 회개하도록 여러 모양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회개치 않음으로 그렇게 죽게 하신 것이나,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가 계속 열매(생명구원)를 맺지 않음으로 주께서 뽑아버리라고 어찌 땅만 버리겠냐고 질책하실 때 포도원지기인 목자가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청하는 말이 "주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어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상황이 포도원의 열매없는 무화과는 죽은 목숨이었지만 자비로운 목자의 중보간청(중보간청) 덕분에 가까스로 1년 더 생명연장의 혜택을 입게 되었듯이 우리의 믿음과 영적상태가 비슷한 상황이 아닌지 심사숙고해 보시고 서둘러 회개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생명열매 맺어 영생복락의 주인공이 되시길 빕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LA 백송교회
성령 컨퍼런스

오전 11:00 | 오후 7:30

2019. 4. 24 (수) 오후 - 5. 4 (토)

주일제외

LA 백송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os Angeles, CA 90020

(담임 김성식 목사)



문의) 213 674 7966

213 245 6616

213 249 4790

유튜브에 YouTube

이순희 목사를

검색 해보세요!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미주성결교회 백송교회



좌부터 GSM 한국 지부 임수미 간사, 황선규 목사, 사무총장 김경식 목사

“1:1 동역 선교 통해 모두가 선교사 되길 소망해”

지난 14일, 훼드럴웨이 GSM선교관에서 가진 선한목자선교회 3월 세계선교중보기도회에서 대표 황선규 목사는 내년까지 전방선교사 1500명 후방선교사 1500명을 목표달성을 끝으로 그간 섬겨온 선한목자선교회의 모든 행정과 사무를 후임에게 물려주기로 선언했다.

황선규 목사는 “내년까지 GSM 대표로 사역하고 남은 삶은 효과적인 일대일 동역선교 프로그램이 후학들에게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또 효과적으로 전 세계에 확산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논문으로 남겨두고자 풀러 선교대학원에서의 학업과 GSM 선교를 도우며 하루를 천금같이 사용하고자 한다”며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선교의 밤을 위해 미국 전 지역과 한국 유럽, 남미를 쉴새 없이 다니며 누구보다 바쁜 와중에도 학업까지 병행하고 있지만 그는 사실 건강한 몸이 아니다. 올해로 88세인 그는 저서 ‘평생선교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폐암말기 판정을 받았었으며, 심장에는 철 스프링 4개나 박혀있고, 호흡기를 달지 않고 잠자리에 들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환자다.

그는 2002년 시애틀 중앙침례교회에서 은퇴했을 당시 폐암 말기 상태로 길면 3개월 가량 살 수 있을 것이란 의사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생명이 연장된 삶을 살아왔다. 이후 100달러가 가장 값지게 사용될 수 있는 선교지를 찾아 다니며,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장 뜻 깊게 사용하겠다’는 선교의 마음으로 미국 한인교회와 한국 교회에 강력한 선교의 감동을 일으켜 왔다.

GSM 선한목자선교회는 2019년 현재, 전방선교사 1300여명 후방선교사 1400여명 총 2700여명의 전·후방선교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지만 그 시작은 작았다. 황 목사는 시애틀 중앙침례교회 은퇴 후 자신의 6.25 한국전쟁 상이군인연금으로 받고 있었던 500달러를 선교기금으로 내놓고, 마지막 생명을 주께 드리고자 첫해에 15명의 선교사에게 월 100달러를 후원하는 것으로 선교를 시작했다.

매년 눈부신 선교 확장을 거듭한 GSM은 2020년에는 선교사 1500명, 후원자 1500명인 ‘비전 GSM 3000’을 목표로 하고 3차 10개년 계획인 2030년에는 선교사 3000명, 후원자 3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GSM 선교회는 앞으로 해외 지부 30개국 확대, 대륙 별 선교대회 개최, 후원 이사회 신설, 전후방 선교사와의 유대 강화, 체계적 후원 시스템 구축, 1.5세와 2세들의 적극적인 후원 참여 등을 통해 사역 영역을 확장하고 1대 1 동역 선교를 통한 복음 전파에 주력할 계획이다. 황선규 목사(오른쪽)와 그의 사모. 황 목사에게 사모는 인생의 동반자이자, GSM 사역의 든든한 동역자다.

GSM 사역의 든든한 동역자다. 황 목사가 임기 마지막까지 공들이는 사역은 GSM 선교사가 다른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과 파송 교회가 없는 선교사에게 파송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일이다. 이것은 전방선교사들의 후원금이 끊겨 선교 자금 문제로 위축되지 않도록 자신의 남은 생을 다해 튼튼한 선교 기틀을 다지려는 생각이다.

황선규 목사는 “오늘 떠나가도 아무 여한이 없는 몸이지만 계속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서 감격스럽고 감사하다”며 “호흡할 수 있는 동안 주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쓰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하루하루 생명이 연장돼서 한 3년 정도 더 살 것 같다는 마음이 들긴 했지만 지금까지 호흡할 수 있을 줄은 몰랐다”며 “그 동안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와 생명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는데, 지금도 살아 있는 것을 보면 주께서 아직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황 목사는 또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면 오늘 하루 더 생명을 연장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실 사역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다”며 “복음 전파를 위해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앞에 자신은 무익한 종에 불과하며, 1:1 동역 선교를 통해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고,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해 나아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신의 주택과 자동차를 기증한 황선규 목사의 뜻을 따라 GSM은 황 목사의 주택을 GSM선교관으로 사용하고, GSM 선교사들을 위한 행정처와 기도처, 쉼터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폴 원 기자

제 24회 동남부지역 다민족 유소년축구대회 열린다



제23회 애틀랜타 다민족 유소년 축구대회

제 24회 동남부지역 다민족 유소년축구대회가 오는 5월 18일(토) 오후 1시 피치트리릿지 하이스쿨에서 열린다.

애틀랜타한인교회협의회와 애틀랜타한인회가 주최하고 애틀랜타유소년축구선교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교회나 단체, 연합팀으로 참가가 가능하다. 참가 그룹은 U4 (Pre-K), U6 (Kind - 1 학년), U8 (2 학년 - 3 학년), U10 (4 학년 - 5 학년) 이다.

참가비는 팀당 200불(U4 100불)이며 팀당 엔트리는 여학생 한명을 포함해 8명이다. 또 대회 우승팀은 6월 8일 열리는 동남부체전에 애틀랜타 대표팀으로 출전하게 된다.

주최 측은 “유소년 전도와 선교에 의미를 두고 미약하게 시작된 대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발전을 이어오며 다민족을 포용하는 대회로 외연을 확장하게 됐다. 유소년축구대회는 지역 교회간 연합과 스포츠 활동을 통한 유소년 인성교육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678-362-7788

교회맞선교회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주중 영혼의 샘 예배 오후 7:30(월,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주일예배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쉽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아침예배 오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20(토)
주일예배 - 버질중학교 (1가와 버몬트 코너) 152 N. Vermont Ave., LA, CA 90004
주중모임 - 사랑올림픽센터 26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사랑올림픽센터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1521 S. Hill St., LA, CA 90015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믿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가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상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12:30
찬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7:00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08:30 영어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지용덕 담임목사
미주양곡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민사회와 가정을 섬기는 말씀공동체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213) 267-0030 www.churchla.org

1부예배 오전 10:30
2부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대예배 1부 오전 8:00 새각족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 (목) 오후 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 (화~토)
정병노 담임목사
새 일 교 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4-8690. (213)820-7240 Email : lasehil2011@gmail.com
(67와 Westmoreland 코너 First Baptist Church 안에 있습니다)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오전 6:00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EM 오후 12:30
정세훈 담임목사
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열왕기상 7:21)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386-0685 www.lasaehan.com

1부예배 오전 9:00 청년부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예배 오후 7:30
영유아부,유초등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정인호 담임목사
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249-9191 ,www.lajvc.webchurch.kr

1부예배 오전 8:30 EM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예배 오후 7:30
중고등부 오전 10: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유치부, 유년 초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00
곽건섭 담임목사
예은장로교회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745-9997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예배 오후 8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
박은종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주일 1부예배 (본당) 오전 8 : 30 주일학교 오전 11 : 00
주일 2부예배 (본당) 오전 11 : 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 : 00
금요찬양예배 (본당) 저녁 8 : 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 : 30
리셋예배(열린예배) (소예배실) 오전 11 : 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부,유아,아동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매주 화~토 오전 6: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
김 신 담임목사
주향 교회
나눔의 행복이 있는 교회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3-4951 / 4952 F. (213)383-5085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은혜집회 오후 8:00
유치부,유년부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청년대학부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은목 담임목사
평화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성공을 통해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에 힘쓰는교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cjc.church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90057
T. (213) 381-949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t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정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1620 N.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562) 690-0038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청년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장주영 담임목사
뉴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 ~토)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수요기도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查经班：周二 晚上 七点半。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최승목 담임목사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후 1:0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 (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오전 6:00(토)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818)363-5887
MP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el: (323) 837-09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태아 죽이기보다 살려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찾자"

'낙태죄 대안마련, 무엇이 쟁점인가?' 주제 토론회



낙태죄 대안마련, 무엇이 쟁점인가?' 토론회가 진행됐다.

'낙태죄 대안마련, 무엇이 쟁점인가?'라는 주제로 25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이 주취했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생명운동연합이 주관했다.

토론회에선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함수연 회장(낙태반대운동연합), 김길수 사무총장(생명운동연합), 배인구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발표했다.

"여성의 결정권과 태아 생명권이라는 잘못된 구도"

먼저 '낙태죄 폐지 주장에 대한 반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함수연 회장은 '태아가 생명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출산 여부를 여성이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는 주장이 타당성을 가지라면 임신된 배아 또는 태아는 독립적 인간생명이 아니어야만 한다"며 "그러나 생명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함 회장은 또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낙태 논쟁의 대결구도는 잘못된 것"이라며 "서로 충돌되는 가치가 아닐 뿐만 아니라, 둘 다 독립적인 영역으로 보호돼야 할 가치다. 당연히 자궁은 여성 자신의 것이다. 그러나 태아가 그 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법을 바꾸는 것이 낙태 문제의 해결 방법은 아니다. 낙태가 불법인데도 낙태의 필요를 느끼게 만드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힘을 합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황이 잘못되었다면 상황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상황을 그대로 두고 그 잘못된 상황에 맞춰 법을 바꾸려는 것은 잘못된 문제해결 방식"이라고 했다.

함 회장은 "우리는 모두 태아 출신이며, 낙태를 당하지 않은 덕택에 낙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태중의 아이는 아직 우리에게 들리는 주파수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함과 고통의 차원을 넘어선 생명의 위협상황에 처해진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라고 했다.

"모자보건법 폐지하고 '부성 책임법' 만들자"

다음으로 김길수 사무총장은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정책제언'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 사무총장은 "낙태죄 논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여성만이 낙태죄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라며 "국회는 낙태죄와 관련해 남성의 책임성도 강화하는 입법 활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성이 낙태를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회·경제적 여건보다 책임지지 않으려는 남성 때문"이라며 "형법에 부성의 책임을 강화하게 위해 '낙태교사죄'를 신설하고, 친생부가 육아를 책임지도록 하는 '부성 책임법'(가칭)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태교를 중시하고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로 치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의 삶을 인정했던 우리의 민족이 이렇게 태아를 생명으로 보지 않고 낙태에 대해 무감각하게 된 것은 1973년 모자보건법이 제정되면서부터"라며 "정부가 강력한 출산 억제 정책을 펴던 시절에 낙태를 장려해서라도 출산율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게 모자보건법"이라고 했다.

이에 모자보건법 폐지를 주장한 그는 "그 대체 입법을 한다면, 2010년 이영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좋은 참고자료"라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산모구명과 성폭행에 의한 임신 외에는 낙태 허용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등이다. 아울러 그는 △(병원 운영상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낙태 수술의 유혹을 느끼지 않도록) 산부인과 의료수가의 조정 △생명주의에 입각한 성교육 실시 △미혼모를 위한 실질적 지원 등을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태아를 죽여서 행복을 찾으려 하기보다 살려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찾자"고 했다.

김진영 기자

이어령 박사 "윤리와 정신보다 하나님 나라 더 중요"



소강석 목사(왼쪽)가 이어령 박사와 대화하고 있다. ⓒ새에덴교회

"나는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습니다.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그 시간에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많은 글을 남기려고 합니다. 요즘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제가 대신 말동무를 해 드릴게요. 저에게는 그냥 소중한 하루하루를 값지게 살게 해 주세요.'"

암에 걸린 이어령 박사(초대 문화부 장관)가 "암과 투병 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세요?"라는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의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소 목사는 최근 이 박사를 만나 나눈 대화의 내용을 자신의 '목양칼럼'을 통해 소개했다.

소 목사에 따르면 이 박사는 한국교회에 대해 "병들어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니까 한국교회가 더 염려가 되기도 한다"며 "그래서 혹자는 3.1운동 때의 한국교회와 지금의 한국교회는 너무나 다르다고 말한다. 심지어는 지금의 한국교회로는 이 시대와 사회를 이끌어갈 수 없다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이 박사는 "그러나 역사상 완전한 교회는 없다. 때 묻고 오염된 때가 더 많았다"며 "이게 지상 교회의 한계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메시야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더 중요한 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윤리와 정신보다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다. 지금 한국교회가 갈망해야 할 것은 바로 메시야"라고 했다고 소 목사는 전했다.

김진영 기자



미국 복음주의자들이 브라질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조엘 로젠버그 트위터

미국 복음주의자들 만나 기도 받은 브라질 대통령

미국 팻 로버트슨(Pat Robertson) 목사가 이끄는 수십명의 미국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자이르 보우소나로(Jair Bolsonaro) 브라질 신임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1일 보도했다.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보우소나로 대통령은 19일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기자회견을 가진 뒤, 복음주의자들과도 만남을 가졌다.

로버트슨 목사와 그가 대표로 있는 기독교방송네트워크(CBN)에는 조엘 로젠버그 작가, 복음주의자 라인하르트 본케, 카리스마 미디어 설립자인 스테판 스트랭, 메릴랜드의 해리 잭슨과 조나단 폴웰 사제, 린치버그 침례교회 토마스 로드 목사, 리버티대학교 설립자의 아들인 제리 폴웰 등이 함께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보우소나로 대통령과 남미의 미래 뿐 아니라 아니라 전통 기독교 신앙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또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브라질의 기독교 유산과 가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동안 그의 행정부와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고. 로버트슨 목사는 보우소나로 대통령을 위해 "주님, 대통령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고, 지혜롭게 하소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치우치든지 '이것이 바른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소서. 오는 세대에 그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현재 보수적인 성향의 사회자유당 소속인 보우소나로 대통령은 대표적인 우파로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사회기독당 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했던 그는 트럼프가 사용한 것과 같은 전술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반체제 운동을 벌였다고 한다.

당시 부패 스캔들로 탄핵당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에 취임한 미셰우 테메르 전 브라질 대통령은 지난 1월 보우소나로 대통령에게 자리를 물려준 뒤 퇴임했다. 그러나 호세프 대통령 역시 재임 중 부패 혐의로 21일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우소나로 대통령은 가톨릭 신자로 알려져 있으나 아내와 아들은 복음주의자이다. 사회적으로 보수적인 그의 관점 때문에 브라질 내의 보수주의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스트랭 대표는 카리스마 미디어에 기고한 글에서 "보우소나로 대통령은 복음주의자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가 대선 운동 기간, 괴한의 흉기에 찔려 작년 10월까지 병원에 입원했던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보우소나로 대통령은 "과거 좌파 중심의 정책에서 돌이켜 브라질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랭은 "보우소나로 대통령의 주된 목표 중 하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보호하고, 이스라엘과의 동맹을 강화하며, 사회주의로 희생된 이들을 역전시키는 것"이라며 "흥미롭게도, 이 가운데 중요한 문제들은 오늘날 미국도 동일하게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우소나로 대통령은 특히 이스라엘의 브라질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속히 이전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그는 "이스라엘은 브라질의 롤 모델이다. 이스라엘은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라는 사실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브라질의 이웃 국가인 베레수엘라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강혜진 기자

세계 최대 기독교 용품 업체 '라이프웨이', 170여개 매장 폐쇄



ⓒLifeWay

세계 최대 기독교 자료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남침례교의 '라이프웨이 크리스천 리소스'(LifeWay Christian Resources)가 170개 오프라인 매장을 폐쇄하고 온라인 판매에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20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라이프웨이의 기업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캐롤 파이프는 회사 웹사이트에 "다이내믹한 디지털 전략에 대한 전략적 자원 이동"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온라인 웹사이트인 '라이프웨이닷컴'(LifeWay.com)과 라이프웨이 고객 서비스 센터(1-800-458-2772)를 통해 광범위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제공 할 것"이라며 "라이프웨이는 또한 교회와 직접 협력하는 교회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에게 봉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래드 와거너(Brad Wagoner) 대표대리는 성명서를 통해 "라이프웨이가 여전히 디지털 출판을 통해 강력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출판, 이벤트 및 교회 예배 관련 사업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라이프웨이는 미래를 준비하고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디지털 포커스를 갖춘 새로운 시대로 옮겨 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월 라이프웨이 톰 레이너 대표는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오프라인 매장 중 일부를 닫을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매장에서 디지털 채널로 많은 자료를 전환할 것이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미래를 만날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이다. 도전적인 소식은 일부 매장이 폐쇄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메시지를 남겼다. 와거너 대표대리에 따르면 "당초 일부 매장은 개방하려고 했지만 현재의 시장 전망에 따르면 더 이상 실행 가능한 옵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라이프웨이는 매장이 위치한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으며 그 지역사회에 봉사하게 되어 영광이다"라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사우스베이, 토렌스

가디나선교교회 —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30 / 3부 EWS 예배 오후 2:00 /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 금요기도회 오후 7:00 /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가디나 장로교회 — 신태섭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 E.M 예배 오전 11:00 / 유치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 중고등부 오전 11:00 / 금요예배 오후 8:00 /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217-9191 www.gpclove.com

나성금란교회 — 이석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1부예배(EM) 오전 9:30 / 2부예배(EM)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남가주샬롬교회 — 김준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후 1:30 / 한어청년부 오후 2:15 /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대흥장로교회 —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00 / 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둘로스교회 —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세계성경장로교회 — 강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은혜로교회 —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 2부 예배 오전 10:45 / EM성인예배 오후 1: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좋은소식교회 — 이호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5)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주님세운교회 —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EM예배 오전 10:45
주일학교 오전 11:00 /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비젼교회 — 이상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svision.org

코너스톤교회 —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토렌스제일장로교회 —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8:00 / 주일2부 오전 9:30 / 주일3부 오전 11:00 /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토렌스 조은교회 —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 수요예배 오후 8:00 /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한인소망교회 — 윤 목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9:00 / 주일2부 오후 11:00 / 수요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1부), 6:30(2부)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s, CA 90274
T.(310)715-9902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O.C, 얼바인 지역

CMF선교회 — 김철민 장로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 www.CMFM.org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UBM교회 — 이명이 담임목사
성경통독모임 오전 9:30 / 주일예배 오전 11:00 / 유초등부 오전 11:00 / Youth/College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 금요예배 오후 8:00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연합하는 교회
151 E.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Tel: 714-336-8995 www. ubmchurch.com

갈보리새생명교회 — 민승기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20 /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감사한인교회 —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30 /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 장애인예배 오전 11:30 /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나침반교회 — 민경엽 담임목사
1부(한국어) 오전 8:00 / 2부(한국어) 오전11:00 / 3부(영어) 오후1:30 / 주일학교 오전11:00 /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말씀묵상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 한국학교(토) 오전 9:00 /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30
다시 복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남가주 벧엘 교회 — 오병익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11:00 /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 셀가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남가주동신교회 —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20 / 영어예배(EC) 오전 9:30 /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남가주순복음교회 — 이 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 금요예배 저녁 8:00 /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예수 생명으로 열방을 살리는 예배공동체! ALL IN JESUS 예수께 모든 것을 거는 예수공동체!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남가주새소망교회 —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 (토요일) 오전 6:00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NEXT 사랑의교회 — 왕상윤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 2부예배 오전 11:00 /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5: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www.dagamsachurch.org
다 감사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행복한 동행!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00 (영어예배)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 (젊은이예배)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공동체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찬양예배 오후 7시(수) 제자성서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후 3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토)
람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이 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아,유아,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청년 오후 12:3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749-7770 www.saemm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웅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 (청년 영어)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1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2부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오전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명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최성칠 담임목사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영어 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유초등 예배 오전 11:30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868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 gsch.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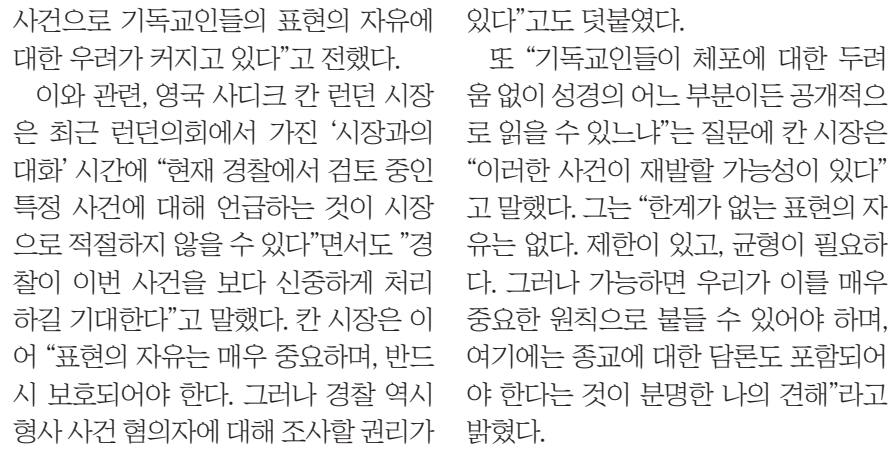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英 런던 시장 "표현의 자유 매우 중요… 그러나 한계도"

일레산미 목사 체포 사건 언급



런던 사우스게이트 지하철 역 앞에서 전도하다 체포된 올루호울 일레산미씨. ⓒ크리스천컨선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이 영국의 한 목회자가 사우스게이트 튜브역 인근 거리에서 전도하다 체포된 사건을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에는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2월 말 영상을 통해 노방에서 전도 중 경찰에 체포된 오루울레 일레산미 목사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다.일레산미 목사는 곧 풀려났지만 경찰이 한 개인의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었고, 이를 보도한 영국 크리스천투데이도 "이번 사건으로 기독교인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영국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최근 런던의회에서 가진 '시장과의 대화' 시간에 "현재 경찰에서 검토 중인 특정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시장으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경찰이 이번 사건을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칸 시장은 이어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찰 역시 형사 사건 혐의자에 대해 조사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은 정책적 시위와 공공질서와 관련된 사건 등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면서 "런던경찰국이 민감하게 사건에 접근했고, 균형의 의무를 중요하게 받아들인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칸 시장의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의회 소속이자 기독교인인 데이비드 커튼은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권리"라며 "경찰이 일레산미 목사의 성경책을 가져간 일 등 불편한 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기독교인들 가운데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고 있다는데 대한 우려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 "기독교인들이 체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성경의 어느 부분이든 공개적으로 읽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칸 시장은 "이러한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계가 없는 표현의 자유는 없다. 제한이 있고, 균형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가 이를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붙들 수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종교에 대한 담론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한 나의 견해"라고 밝혔다.

강혜진 기자

"이승만 자유민주주의 없었으면 신앙의 자유도 없다"



김용옥 교수 ⓒKBS 1TV 캡쳐

김용옥 한신대학교 석좌교수가 지난 16일 방송된 KBS 1TV '도올아인 오방간다'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김 교수는 또 이날 방송에서 "사실은 (이승만과 김일성) 둘다 미국과 소련이 여기(한반도)를 분할 통치하기 위해서 데려온 자기들의 일종의 퍼핏(puppet), 괴뢰"라고도 주장했다. 신탁통치에 대해서도 "신탁이 나쁜 게 아니"라고 한 그는 "소련이야 말로 한국을 분할 점령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미국이 분할 점령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소련은 (조선을) 빨리 독립시킬수록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탁통치는 남북이 하나 된 임시조선민주정부를 세우기 위한 방안"이라며 "찬탁은 합리적 사유의 인간, 반탁은 변통을 모르는 꼴통의 인간이다. 전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신탁통치를 찬성했어야 했다. 그럼 분단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자신의 책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을 연구한 한 역사학자는 "이승만을 (미국의) 괴뢰로 보는 건 억지다. 그를 비판하는 이들조차 그렇게까지 말하진 않는다"며 "오히려 해방공간에서 이승만은 미국 정부나 국무성과 갈등했던 인물"이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이승만은 좌우합작을 추진했던 미국을 비판했고, 대통령이 된 후에도 미국에서 많은 걸 얻어내려 미국에 반기를 든 적이 있다.

신탁통치에 대해서도 "당시 동유럽 등 여러 공산권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던 공산세력의 정권과 영토 장악 시도들을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소련이 신탁통치로 한반도를 독립시킬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비합리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이승만학당 교장) 역시 "소련의 신탁통치 목적은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려는 것"이라며 "이승만이 미국의 괴뢰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이승만은 미군정에 의해 억압과 감시를 받았다"고 했다.

이 밖에 "백번 양보해 사실관계를 고려치 않더라도 일국의 초대 대통령에 대해 '파내야 한다'라는 발언을, 그것도 공영방송에서 거리낌 없이 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하지 못하겠다. 학자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특히 박명수 교수(서울신대 교회사)는 기독교인이라면 이승만 대통령의 공(功)을 사실 그대로 인정해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분명한 자유민주주의 입장을 갖지 않았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만약 그랬다면 기독교도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이는 기독교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북한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자유민주주의 체제, 즉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국가가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정신 아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개척, 철저히 준비한 사람만이 살아 남는다



성 백 승 교수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얼마전 개척 목사님들과 나누었던 대화가 생각난다. 10명 남짓한 교회에 새신자가 찾아올 확률은 몇 %나 될까요? 찾아 왔다면 그 분들이 그러한 환경에서 6개월 이상 버틸 확률은 몇 %나 될까요? 대분분의 참석자가 5분 안에 대답하지 못하였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사회적 정보를 교회개척의 준비단계에 활용하였다. 그는 안디옥 교회를 거점으로 당시의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등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끈질긴 핍박과 불리한 개척조건에도 불구하고 놀랄만한 교회개척 성과를 거두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개척자로 선출되었다. 그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도시 교회를 하나 하나 개척하며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실천한다. 안디옥은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다문화된 지역이며 바울은 도시 상황에 맞는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개척 전략을 제시한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과 사회 공동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은 피차 유기적인 조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하나님과 제자의 커뮤니 케이션을 수직적 커뮤니 케이션이라고 말하며 수직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주도권은 하나님의 것이다.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교회와 제자의 커뮤니케이션을 수평적 커뮤니 케이션이라고 말하며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주도권은 정보 활용을 통한 교회와 제자의 역할이다.

바울이 교회개척에서 정보조사 활용의 필요성과 요청이 의논되고,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정보를 통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곧 교회나 교회의 지도자, 교회 개척자가 시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에 정보가 효과적인 수단으로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은 초대교회에 나타난 중요한 사건에서부터 출발한다. 사도행전 2장 5절~12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제자들이 각 나라의 말로 성도들에게 메세지를 전송하는 내용을 보게된다. 그들은 과거 전혀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 메세지를 제자들의 언어를 통하여 듣고 커뮤니케이션이 편성된 것이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메세지를 진술하자 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 언어로 그 메세지의 내용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 성경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메세지가 효과적으로 작용되려면 메세지 전달자가 그 대상의 공동체와 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하려는 의지적 주도권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바울이 개척지역의 상황적 이해를 따라 개척지역의 공동체에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조사하고 활용한 것에서도 볼 수 있다. 바울은 가능한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와 도구인 개척 현장 정보를 활용한 것이다.

바울은 로마제국의 대도시들을 정보활용과 교회개척의 거점들로 삼으면서 가는 곳마다 세력을 넓혀 갔다. 바울은 에베소 같은 지역에서는 3년 이상이나 체류한 적도 있었으나(행 20: 31), 대부분 한 지역에 오래 거처하지 않았다. 개척된 교회들이 스스로 독립할 준비가 되고 또 다른 개척사역을 떠나는 바울을 도울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바울은 다른 곳으로 향하였다.

목회자가 '아마겟돈'을 전파하면 회중들은 '아마'자는 잊어먹고 '겟돈'만 기억하고 돌아가는 경우를 본다. 정보활용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바울은 도시 정보를 활용하여 제한된 기일 안에 더 많은 잠재신자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겠다는 의도에서 인구가 밀집된 곳, 보다 복음에 수용적인 지역, 대중적 공용어를 잘 이해하는 지역 도시에 전략적으로 집중하여 전파하였다. 도시에 교회가 개척되면 그 위성 지역들은 도시 교회들의 재개척 활동에 의해 이차적으로 교회화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같은 도시 거점 개척원리는 결과적으로 보다 신속한 복음화를 가능케 하였다.

고요하면 보고 듣게 됩니다!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고요한 마음을 가꾸는 것이 지혜입니다. 요동치는 세상에 살고 있긴 하지만 마음은 늘 고요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생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은데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요하면 보게 됩니다. 저는 고요한 호수를 자주 생각합니다. 제 마음이 고요한 호수 같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호수에 거센 바람이 불면 호수는 출렁거립니다. 하지만 거센 바람이 멈추고 고요해지면 호수에 하늘이 보입니다. 고요하면 보입니다. 고요하면 보이는 까닭은 고요함이 맑음이기 때문입니다. 고요해지면 맑아집니다. 호수가 고요하고 맑아지면 순식간에 하늘이 찍힙니다. 호숫가에 심기운 나무가 고요한 호수에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냅니다. 맑은 호수는 푸른 하늘에 떠 있는 흰 구름을 담습니다. 고요한 호수는 밤이 되면 달과 별을 담습니다. 고요하면 맑아지고 밝아지면 깊이 보게 됩니다.

고요하면 듣게 됩니다. 깊이 듣기 원하면 고요한 마음을 가꾸어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복잡하면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은 체 하는 것과 정말 듣는 것과는 다릅니다. 듣기 위해서는 마음이 고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게 임합니다.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음성은,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임하지 않았습니다(왕상 19:11). 지진 가운데와 지진 후에 불 가운데도 임하지 않았습니다(왕상 19:12).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소리"였습니다(왕상 19:12).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고요해야 합니다.

고요함은 깊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깊고 세미한 음성은 깊은 고요함을 통해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요 5:25)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사 55:3)고 말씀합니다.

고요함의 비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걱정을 맡기십시오. 음식만 금식하지 말고, 걱정도 금식하십시오. 성경은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약 1:6)라고 말씀합니다. 의심 대신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신뢰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 마음에 복된 소망이 임하게 됩니다.

고요함의 비밀은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것을 잠시 멈추십시오. 스마트 폰과의 접촉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과의 접촉을 시도하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고요"라는 히브리어 "다맘(damam, דָּמַם)"의 뜻 가운데 "그치다. 기다리다."는 뜻이 있습니다. 곧 "고요란 멈추어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오. 고요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생활하시길 빕니다.

베낌



구 봉 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아는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대학원생 시절, 조교로 후배들의 시험을 감독하고 채점하는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배들의 정직성을 테스트 하고 싶어서, 무감독으로 시험을 치겠다고 공고를 했다고 합니다. 시험 당일, 몰래, 학생들이 어떻게 시험을 치르고 있나 보러 갔더니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 외에는 모두 앞 뒤 옆을 봐가며, 현란한 솜씨로 풀이 과정과 답을 베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채점을 했더니, 학생의 90퍼센트 이상이 90점 이상의 점수였습니다. 결국 재시험을 치겠다고 공고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인은 재시험을 먼젓번 시험과 똑같이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날, 시험 감독을 다섯 명이나 세워 커닝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웃었습니다. 지난 번, 실수한 문제를 수정할 기회가 생겼으니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반대로, 불로소득을 얻으려 했던 학생들은 탄식을 했을 것입니다. 답은 기억나는데, 풀이과정은 기억나지 않았을테니 말입니다. 정말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신앙은 베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앙을 베끼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명한 목회자의 설교를 듣거나, 특정한 신앙인의 간증을 듣는 것으로 마치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 듯 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고난과 시험이 닥쳐오면, 우리는 영락없이 뒤통수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듭니다.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보잘 것 없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하고, 끊임없는 순종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섬기다가 시험에 들기도 하면서, 영적인 지식들을 체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 깨달은 말씀과 간증들을 다른 이와 스스럼없이 나눌 수 있는 신앙의 모범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동부와 고등부 사역자

선한목자교회는 LA 동부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사역하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다음과 같이 아동부와 고등부 아이들을 사랑으로 지도하실 파트 사역자를 모십니다.

1. 지원자격
(1) 신학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생
(2) 이중언어(한국어, 영어)가 가능하신 분
(3) 합법적인 미국 체류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2. 제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신앙간증 포함), 추천인 2명 기재 요함
(관계, 연락처 포함 – 추천서는 소정의 서류 심사 후에 요청드립니다)

3. 주요사역
주일 예배 및 주중모임(금요일 7:30pm) 인도와 기타 관련된 사역

4. 제출하실 곳 : iclarkmsn@gmail.com
To. Pastor Clark Choi / 최 클락 목사 – 교육부 담당목사

5. 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ECO 선한목자교회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 (909)591-6500 | Info@sunhanchurch.com

GAIA CODYCEPS
가이아 동충하초
겨울에는 곤충으로 있다가 여름에는 버섯으로 피어난다 하여
동충하초(冬蟲夏草)라는 이름이 불었습니다.
등소평이 94세까지 장수하기 위해 가장 즐겨먹던 음식.
다른 성분은 일체 넣지않은 100% 동충하초 분말
한국 가이아 팜에서 재배한 유기농 동충하초를 미국으로 직송
코디세핀이 풍부한 21세기 천연항생제
한국 식약처 안전 검사필 (No. 2013-0372219)
면역세포증식
치매예방
당뇨
성기능 증진
구입 문의 213.434.1170
PRO-Z USA Inc. 프로지 유에스에이
prozusa1@gmail.com
3020 Wilshire Blvd. #160, LA, CA 90010

LOS ANGELES MONTEREY PARK GOLF ACADEMY
일반인·주니어를 위한
특별 맞춤 골프 프로그램
■ 대상 : 일반인·주니어 레슨(8살~18살)
■ 시간 : 평일 레슨(화~금), 주말 레슨(토)
■ 장소 : Monterey Park Golf Club
(LA한인타운에서 차로 15분 거리)
– 골프 선수를 꿈꾸는 꿈나무, 대학진학 전문상담
– PGA 투어 출신 프로가 체계적인 스윙 교정, 숏 게임, 필드 레슨까지
Robert Sul
University of Las Vegas Golf Team's 2 Times 백상배 챔피언
2009 KPGA TOUR
AJGA all-American
Golf Digest Top Ten Amateur
Kenny Kim
Named 2004 Gahr High School Athlete of the Year
UC Irvine Men's Golf Team from 2004~2008
2006 PGA Tour Buick Open at Torrey Pines
2010 U.S Open at Pebble Beach
2010 PGA Tour Reno-Tahoe Open
2011 Long Beach Open(T2nd)
T:(562)383-3566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훼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n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 찬양 사역자 구함
- 기타 연주 하시는 분
- 드럼 연주 하시는 분
- 바이올린 연주 하시는 분
- 기타 악기 연주 하실 수 있는 분

문의 : (213)408-5819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Scott Kim Studio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담아 드립니다.
10년 후 펼쳐봐도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Scott Kim Studio가 함께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진을 남기세요)
- 교회 출장 사진 전문
- 영정 사진
- 가족 사진
- 입관·하관 예배
- 부동산 홍보

213·810·4000
scottkimstudio@gmail.com
Kakao talk ID : scottkimstudio

목소리 재능 기부
현재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우 스캇 김입니다.
교회에서 성우 같은 전문적인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LA인근 지역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으니 연락주세요.

주님미디어 새해맞이 이벤트
CD PRINTING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패키지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Stand X-Banner $65
거치대포함
*사이트에서 샘플선택
Retractable Banner $140
인기상품 A형 스탠드배너 $160 (디자인 포함)

주님미디어 NEW YEAR EVENT
말씀 액자
$35 16x16inch 기준
*주님미디어에서 직접 쓴 손글씨로 제작된 말씀액자입니다.
주님미디어에서만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물티슈 주보제작 교회로고 머그컵&텀블러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인문학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 더 깊이 알고 싶어진다

[김도인의 아트설교] '인문학'은 '인본주의'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목사님과 진지하게 대화를 해야 되지 않아?"

"아냐, 해 봐야 뾰족한 수가 없어, 지금까지 해봤는데 소용이 없었잖아!"

"그냥 우리끼리 의견만 모아서 일을 되도록 만들자, 단지, 아셔야 되니까 말씀만은 드리자.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난상토론의 결말은 결국 자기들끼리만 의견을 통일하기로 한다. 목사님께는 토론 내용을 알려주는 것으로 그친다. 교인들이 목사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 이유는, 목사님과 대화가 안 되기 때문이었다. 성도들의 생각은 인간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신학적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이다.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형석 교수는 그의 책 《교회 밖 하나님 나라》에서 고인이 된 박경리 작가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을 소중히 여겨야 함을 말한다. 김 교수의 팔촌 누님은 교회 권사였다. 그녀의 이웃 중 한 명이 박경리 작가였다. 둘은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 박경리 작가가 교회를 다녔으면 해서 교회를 가자고 몇 번 권했다. 권하니 교회를 출석했다. 그녀는 몇 번 출석한 후 안 나가겠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목사의 설교를 들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 오늘날 인간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는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기 때문이다."

앞의 예나 박경리 작가의 이야기처럼, 공통점은 목사와 교인이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교인들의 목사에 대한 이야기는 부정적이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과거의 필자가 떠오른다. 필자도 소통이 되지 않는 목사들 중 한 명이었다. 교인들에게 듣던 말 중 하나가 "목사님 우리가 중지를 모은 것입니다.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였다.

그러면 필자는 교인들의 입장은 전혀 헤아리지 않은 채, 성경을 근거로 답변을 했었다. 이후부터는 교인들이 자기들 생각을 거의 말하지 않았다. 목사들은 성도들의 심정과 상황이 자기 신학에 비추어 다를 경우 칼처럼 자른다. 목사가 가진 기준은 오직 성경뿐이기 때문이다.

목사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방법만 있지만,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가 더 있었다. 바로 그들의 삶을 헤아려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이다.



김도인 목사
(아트설교연구원 대표)

인문학은 소통학이다

인문학은 불통의 상황을 소통의 상황으로 만들어낸다. 작금 한국교회의 여러 잡음들은 세상, 그리고 교인과 소통하지 않기에 발생한 것이다. 설교자는 세상, 그리고 교인과 활발하게 소통해야 한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소통하지 않자 촛불을 들지 않았나. 문제는 설교자가 교인과 세상을 소통의 파트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결과 교회는 점점 더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 인문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설교가 아니다. 진리를 외쳤는데 진리가 벽에 부딪혀 튕겨져 나왔다면, 진리가 진리 될 수 있겠는가. 필자는 인문학을 공부한 뒤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리고 주위 목사들에게도 소통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그 이유는 목사가 소통이 달인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목사는 하나님과 소통의 달인이어야 함은 물론, 교인과도 소통의 달인이어야 한다.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신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과 소통하려면 인문학을 알아야 한다. 목사들을 10여년 가르쳐 본 경험에 의하면, 설교자들의 문제는 인문학의 문제, 즉 소통의 문제임을 깨닫는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인문학을 인본주의라고 단정해 버린 뒤 멀리한다. 그럴 경우 소통의 부재는 더욱 심화될 뿐이다. 설교자는 세상과 소통해야 한다. 설교자는 교인과 소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소통을 잘 하도록 도움을 주는 인문학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인본주의란 무엇인가?

인본주의(人本主義, humanitarianism)는 인간의 가치를 주된 관심사로 삼는 사상이다. 인본주의는 오직 인간성(humanity)만이 존귀하다고 믿는 인간성 숭배 사상이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영국의 시인 던바(William Dunbar)의 고백처럼 행동하는 존재다.

"사람아, 너의 창조자를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지내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다. 하지만 인본주의는 인간을 신적 위치에 올려놓는다. 천지를 분간하기 쉽지 않은 10대 청소년들은 자기는 무적, 즉 '슈퍼 히어로'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그 청소년을 슈퍼 히어로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는 그저 배움을 한없이 해야 될 미완성의 인간일 뿐이다. 이런 미완성된 인간을, 인본주의자들은 완전하고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인본주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둔다. 관심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다. 인본주의는 인간이 최고이며, 진리는 인간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옳고 그름도 각 개인이 결정한다.

인문학은 인본주의가 아니다

인문학은 인본주의가 아니다. 인문학은 '인간이 어떤 사람인가?'를 비롯해 인간의 특성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설교자가 인문학을 공부해야 하는 것은 설교를 듣는 사람, 즉 소통의 주체인 인간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세상은 인문학 열풍 한가운데 있다. 한양대학교 정민 교수는 《체수 유병집》에서 작금의 인문학 열풍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지금의 인문학 열풍은 옛날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지금이 납득되지 않아서다."

설교자가 인문학을 해야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해시키기 위함이다. 또, 설교가 피상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박경리 작가는 목사의 설교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했다. 설교가 피상적으로 흐르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고 했다.

설교자들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지라도 성경만 언급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인들은 '그런 이야기는 들을 수 없다'고 토로한다. 결국 설교를 들었지만, 성도들의 삶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저 부담만 가중된다. 설교가 삶에 적용되려면, 설교에 구체성을 띠게 하는 인문학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인문학(humanities)은 소위 '문사철'로 알려져 있다. 문학, 역사, 철학, 언어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즉 인간과 인간의 근원 문제, 인간의 사상과 문화에 관해 탐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인문학을 '후마니타스(Humanitas: 인간다움)'라고 한다.

인문학은 '삶의 원리 찾기이자 삶의 기초 튼튼히 하기'이다. 다산 정약용의 말처럼 문심혜두(文心慧竇)다. '문심'은 글 속에 새겨진 지혜, '혜두'는 슬기 구멍이다.

글을 하나 하나 배워 익힐 때마다 지혜의 곳간이 차고 슬기 구멍이 열려야 한다.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신학을 하면 할수록 인간을 들여다보고 싶어졌다. 그리고 인문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진다. 그래서 신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어진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세상에서 정답이란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학은 인문학과 배치되지 않는다. 서로 선순환을 만들도록 도움을 준다.

"주님을 구세주뿐 아니라 '빛으로 오신 왕'으로 영접해야"

'아가페'의 잘못된 용법과 '필레오'



지옥 자식 되게 말라
지광남 | 有하 | 353쪽

"복음은 바로 주님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라는 이 말씀을 바로 알아야 천국복음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저자는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역이었던 '하나님 나라 전파' 대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진정한 천국복음 전파에 초점을 맞추도록 촉구하고자 책을 썼다.

현재 교회들의 문제로는 "성도들에게 '빛으로 오신 왕'을 영접시키지 않고,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구세주'로만 영접시킨다는 것"을 꼽았다.

"오늘날 교회 안에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은 것은,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구세주로는 영접시켰지만 죄 사함은 일어나지 않았고, 해산의 고통도 없이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이는 잘못된 가르침의 결과입니다."

저자는 천국복음에서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사명이라고 강조한다. 책에서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Agape)'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많고 보편적인 가르침들이 왜곡돼 있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 신앙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 하나님은 구약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참지 않으셨는데, 이는 명사형으로 기록된 'Agape'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전을 찾아보면, 헬라어 '아가페'는 ①의지적 선택 ②존중하다, 존대하다 ③애찬 등의 의미라고 한다. 저자는 "하나님은 우리를 존대하시고 의지적으로 선택하셨다. 우리도 하나님을 존대하며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 '아가페'의 진정한 통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가페'와 친구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필레오(Phileo)'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같은 문장이지만 통치에 해당될 때는 '아가페'를 사용했고, 그다음은 '필레오'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사역을 통해 제자들이 기이히 여기게 하신다고 했다"며 "하나님은 '아가페'로 통치하시고 '필레오'로 사역자를 세우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오늘날 많은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과 멀다. 우리가 스스로 분별하지 못하고 가르침을 따르고 결국 영혼이 잘못됐을 때, 아무도 원망할 수 없다"며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뜻은 경건한 자는 받으시고 경건치 않은 자는 심판으로 멸하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자는 젊은 시절 사업을 하다 40세에 총신대 신대원에 입학했으며, 1989년 필리핀 선교사로 헌신했다. 주일학교 교사 교육과 신학교, 기도원 사역에 힘쓰다 2008년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고 새로운 사역의 길로 들어섰다. 저서로 〈다른 복음이 판을 치는 한국교회〉, 〈마땅히 행할 길〉 등이 있다. 이대웅 기자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
2019년 봄학기 학생모집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PRINCETON BIBLE UNIVERSITY)에서 2019년 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아 그의 사역자로 헌신하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모 집 과 정

◈학사 과정
신학사
선교학사
기독상담학사
기독교육학사

◈석사 과정
교역학석사
신학석사
선교학사
기독상담학사
기독교육학사

◈박사 과정
신학박사
선교학박사
기독상담학철학박사
기독교육철학박사

봄학기 개강 3월 30일

등록상담전화
310-678-6836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A, CA 90057 | TEL: 310-678-6836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

참,(진리의 길) 앎,(학문의 길) 삶,(십자가의 길)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M.A 석사과정 | 48학점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본교 지원시 특전
1)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가능
2)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 수여가능
3)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 (학점교환 가능)

봄학기개강 월 일

입학상담: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세계 복음화의 과업 이룰 하늘나라 군사를 기릅니다”

선교사 양성하는 기독대안학교 ‘빛의자녀학교’(Shine School)

마틴 루터, “말씀이 없는 학교는 지옥으로 가는 문”
서울, 경기도 가평에 이어 캄보디아와 네팔에도 세워져
어른들이 다음 세대가 따라갈 모델이 되어야



빛의자녀학교 교사 단체사진.

“성령의 임재와 능력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부흥과 세계선교를 일으키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빛의자녀학교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세로 사는 ‘7,000명의 선교사 양성’이라는 뚜렷한 목표와 방향으로 지난 7년을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4세에서 18세까지 현재 170여 명의 전교생이 열방에 나아갈 선교사로 훈련받고 있는 기독대안학교가 있다. 모든 학생이 새벽예배와 언어교육, 말씀과 기도 훈련 등으로 영성과 인성, 지성을 갖춘 인재로 자라나도록 돕는다. 2011년 한 명의 학생이 입학하면서 ‘샤인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2012년 3월 ‘샤인랜드스쿨’로 개교했다.

첫해부터 캄보디아에서 돌봄사역과 의료선교 보조사역 등 해외선교를 시작한 학교는 자녀가 회복되고 가정이 변화되었다는 사례들이 입소문으로 전파되면서 지금의 서울 성수캠퍼스와 고등학생들이 머무는 경기 가평캠퍼스를 갖춘 기독대안학교로 발전했다.

캄보디아와 네팔에도 빛의자녀교회 파송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와 ‘샤인스쿨’이 운영되고 있다. ‘빛의자녀학교’(설립이사장 및 초대교장 김형민 목사•빛의자녀교회 담임)가 그 주인공이다. 김형민 초대교장에 이어 2014년 취임한 최용록 대표교장을 14일 성수캠퍼스 인근 카페에서 만났다.

각 분야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성령의 권세로 사는 7천 선교사 양성이 목표다. 어떻게 이룰 수 있나.

“아이들이 먼저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교육받을 때 하나님을 중심삼은 빛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다. 유치원, 초등학생 아이들도 성령을 받으면 회심의 눈물을 흘리면서 몇 시간씩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하고,사랑 받아야 힘이 생긴다. 이 시기를 경쟁하고 누군가를 이기는 법을 배우는데 보내는 아이들이 안타깝다. 교사와 부모님, 교회 모두 이 일에 뛰어들어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말씀대로 살


사관 생도들의 예배 시간 모습

수 있는 힘이 길러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 아이들이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도록 노력한다. 자신의 정체성이 빛의 자녀임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말’과 ‘새벽예배’다. 단순히 입의 언어뿐 아니라 ‘나는 역시 못해’ 같이 내면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언어까지도 잡아주어야 한다. 새벽예배가 좋은 훈련의 장이다. 새벽예배를 통해 절제와 순종을 배울 수 있다. 더 나아가 말씀과 기도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성령을 받으면 유치원 아이들도 부모님을 깨워 새벽예배에 나온다.”

아이들에게 일어난 변화 중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나.

“새벽예배 때마다 자리에 앉지도 않고 혼자 서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노려보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가 은혜받고 치유되어 너무나 밝은 아이로 변화되었고 공부도 잘하게 되니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라워했다. 다른 유치원생 아이는 새벽예배 때마다 집중하지 못했는데 한 달 만에 주님이 강하게 임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통곡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다른 아이들까지 모두 은혜를 받고 몇 시간 동안 기도한 적도 있다. 한 아이는 한쪽 눈의 시력이 회복되었다. 많은 아이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가평에 있는 사관학교 학생들은 매주 금요일 서울에 돌아와서 자발적으로 전도를 나간다.”

영성과 함께 인성과 지성을 갖춘 학생을 길러내기 위해 어떤 커리큘럼이 있나.

“성품 및 샤인훈련, 맞춤형 영어교육, TBRI 수업, 해외선교 및 어학연수, 4차산업 교육을 통해 세상 지혜를 초월하는 인재 양성에 주력한다. 또한 ‘감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성품과 예절교육을 쉐마군사훈련과 성경이야기로 진행하고 있다. 4차산업 시대를 맞아 전 세계 언어와 문화 영역에 실력을 갖춘 아이들을 양성하기 위해 창의성, 융합 언어교육도 중요시한다. 선교사님 자녀들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와 배경에서 온 아이들이 있다 보니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영어다독프로그램(리딩게이트), 학습코칭, 영어•수학 수준별 수업 등을 통해 맞춤형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학교를 한 주 정도 다니면 신입생들이 학교 가는 것이 재밌다고 이야기한다. 다양한 토론 및 프로젝트 수업, 체험학습, 그리고 4차산업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나눌 수 있게 된다.”

요즘 다음세대의 관심사와 꿈, 가치관, 신앙 등을 어떻게 보나.

“4차 산업혁명 및 정보화로 인해 아이들의 관심사가 다양해지고 있다. 유혹이 많은 시대이지만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시대이기도 하다. 또한 점점 극과 극으로 가는 양상을 본다. 자극적인 콘텐츠는 아주 자극적으로 만들어지고, 인간의 감정도 아주 감정적으로 되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너무 밀폐되기도 한다. 다음세대의 신앙, 가치관도 마찬가지다. 다음세대가 교회를 계속 떠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음세대를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하고 계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본다. 이들이 마지막 때 부흥의 주역이 될 것이다.”

다음세대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기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어른들이 다음세대가 따라갈 모델이 되는 것이다. 가정에서는 부모,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모델이 되어주어야 한다. 학교의 경우 교과서, 시설 등 커리큘럼이 중요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사가 제일 중요하다. 저희 학교는 헌신 되고 실력 있는 교사들이 매일 새벽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여 주님의 통로로 쓰임 받기 위해 씨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교사는 목자로서 목양의 경험이 있는 분 중 교육적으로 탁월한 은사를 가진 분들로 모신다.”

빛의자녀학교의 미래 비전은 무엇인가.

“끊임없는 경쟁과 주입식 교육으로 아이들이 가진 재능과 은사가 마음껏 발휘되지 못하는 오늘의 교육현장에서 모델을 제시하고 싶다. 최근 교육의 자율성이 야기되며 서울시에서도 대안학교를 더욱 강화하고 지원하는 정책들을 선보이기 시작했는데 기독대안학교들은 ‘종교편향’이라는 이유로 배제되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의 다음세대를 통해 세계선교를 완성하기 원하신다. 이제 다음세대 교육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말씀이 없는 학교는 지옥으로 가는 문’이라고까지 이야기했다. 지금도 많은 기독대안학교가 교육계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말씀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보고 있다.” 이지희 기자

2019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인준 신학교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0081, FAX:(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수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한편의 시와 같은 향기 가득한 삶과 섬김

기쁜 우리 교회 한우연 권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26)

유난히 봄비가 많이 내린 남가주에 봄 향기가 가득했던 어느 오후, 기쁜 우리 교회(김경진목사) 한우연 권사를 만났다. 우연히 주차장에서 만나 인사를 주고받을 때부터 한 권사의 표정과 언어는 봄처럼 따사로웠다. 차 한 잔 너머로 나누는 대화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시어(詩語)처럼 아름답고 따뜻했다. '향기 가득한 삶!' 인터뷰를 마치고 한 권사를 배웅한 후 기자가 자신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 교회와 목회자를 향한 마음, 일과 직장에 대한 태도와 고백들에서 '향기'가 진동했다.

한 권사는 정제된 언어들로 삶을 나눴다. 남편의 사업 실패와 좌절로 직면했던 녹록치 않았던 과거의 시련을 나눌 때도 절제했고,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의 신앙과 효도 그리고 그들의 힘찬 삶을 나눌 때에도 안쓰러울 만큼 절제하고 조심했다.

믿음과 착함을 물려받고

한우연 권사는 교육자이신 아버지와 평생 내조의 삶에 충실했던 어머니의 신앙과 마음을 물려받았다. 춘천여고 교장으로 계시다 은퇴하신 아버지 황정 장로는 대구사범시절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숙사 룸메이트였다. 시골에서 공부 잘하고 착했던 황정 장로는 대구 사범을 졸업 후 평생 교직에 봉직했다. 어머니 김영진 장로는 착한 아내였고, 어진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수시로 무릎을 꿇는 기도의 사람이셨다.

평생 목회자와 교회를 겸손하게 섬기셨던 부모님으로부터 한우연 권사는 신앙과 섬김을 물려받았다. 부모님은 헌신적인 교회 일군들이셨다. 결정적인 허물과 문제가 없는 한 교회와 목회자들을 지지하고 도왔다. 그는 착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셨던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배운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결혼과 더불어 경험한 골짜기

한우연 권사는 꿈 많은 문학 소녀였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찢어지는 가난도 아니었다. 그야말로 유복한 가정 2남 2녀 중의 막내딸이었다. 작가를 꿈꾸며 문학 공부를 했고 시인으로 등단하여 시집도 냈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일했다.

믿음의 남자를 만났다. 착한 남자였다. 가난한 집안의 막내아들인 남편은 돈을 벌고 싶어 했다.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사업을 했다. 시골에서 농부로 어렵게 살아가는 형님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던 착한 동생의 도전이었다. 경험도 자본도 부족했던 남편은 사업에서 크게 실패했다. 한 권사는 남편의 사업실패의 충격을 온몸으로 받았다.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았다. 이혼도 심각하게 고려했다. 그야말로 필설로 형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교사로 생활하며 안정된 삶을 꿈꾸던 그는 앞이 캄캄했다.

고통의 날에 만난 하나님

그 고난의 날들을 보내며 기도했다. 부모님을 통해서 배운 기도가 저절로 나온 것이다. 그 아픔의 날에 꿈을 꾸고 음성을 듣게 된다. "너는 하늘에 못 하나 올리지 못하는 가난한 인생이다." 그때까지 그의 삶은 천국과 상관이 없는 삶이었다. 꿈에서 한 권사는 "내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고통의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했다.

자신의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한 권사는 교사로 충실했다. 아울러 문학 활동에 매진하며 시작활동에도 힘썼다. 그 결과 시인으로 등단해 시집들도 출판하였다. 학교에서는 우수 교사로 선발되어 외국 연수의 경험도 가졌다.

또한 한 권사는 자녀 교육에 집중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그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우리 아이들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이 선교사 같은 삶을 살게 하소서!" 자녀들의 삶에서 이 기도들이 응답되고 있음을 그는 감사한다.

힘겨운 이민 정착

한 권사는 미국 연수를 통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로 많은 은혜를 받았다. 우선 그들의 도움으로 자녀들의 조기 유학을 실행할 수 있었고 이민 생활 초기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한국에서 교사직을 사직하고 이민 온 첫날부터 햄버거집 주방 보조로 일했다. 이민자의 삶이 녹록치 않았다. 그러나 불평하거나 좌절치 않았다.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귀한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미국에 정착하기까지 고단한 시간이었다.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전직 교사에게 버거운 일이었지만 믿음으로 인내했다. 그 시절 만났던 목사님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 포기나 좌절에 빠지지 않고 정착에 도전했던 한우연 권사의 삶은 드라마 같다.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지만 그는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믿음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그 길을 뚜벅 뚜벅 걸어 나왔다.

발달 장애우를 위한 삶을 시작

한국에서 교사의 경험은 이민 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일했다. 식당 주방보조로, 언론사, 출판사 등등 숱한 직장을 거쳤다. 그러던 중 아주 우연한 기회에 발달 장애우 교육기관인 Partners for potential을 만났다. 장애인을 섬기는 기관이라 특수교육에 대한 훈련이나 경험이 필요했지만 한국에서 교사의 경험을 고려해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한 권사의 장애우 사역이 시작되었다. 한우연 권사가 섬기게 된 Partners for potential은 18세 이상의 정신 장애우들을 돌보는 교육기관이다.

그는 Partners for potential을 직장으로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린다. 19년째 섬기고 있지만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다. 한 권사에게는 풍성한 감사의 이유가 있다. 우선 섬김의 삶을 살게 된 것이 감사하다. 지난 19년을 장애우들의 이모요, 고모요 혹은 형수와 누님처럼 그들을 돌보며 살아왔다. 또 매일 자신을 기다려 주는 장애우들을 생각하면 눈물겹도록 감사하다. 그들의 기다림이 보람이요 행복이다. 자신의 돌봄과 마음을 알고 기다려 주는 장애우들이 있어서 한우연 권사는 피곤한 줄 모른다.

사랑부를 섬기며

그는 자신이 출석하는 기쁜우리교회(김경진 목사)의 사랑부를 섬긴다. 사랑부는 장애우를 돌보는 특수사역부서이다. 한 권사는 장애우들을 학교에서 만나고 교회에서 또 만난다. 그래서 매일 장애우들을 픽업한다. 주일에는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장애우를 만나는 기쁨 외에 사랑부에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는 기쁨이 있다. 송의용 장로, 조용원 권사, 김경숙 권사(A.B), 박성숙 권사, 송정혜 권사, 앤 김 집사 모두 참 귀한 분들이다.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이다. 이런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다.



한우연 시인, 권사(기쁜우리교회) ⓒ강태광 편집위원

기도의 응답인 아들과 딸

한우연 권사는 아들과 딸이 늘 감사의 제목이다. 그가 힘든 삶의 여정에서 꿋꿋할 수 있었던 것은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요 아래로는 아들과 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아들과 딸 때문에 고통의 세월을 이겼고, 아들과 딸 때문에 이민왔다. 눈물의 기도로 키웠고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이 잘 자랐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 조기 유학을 했지만 잘 견뎌 주었다. 넉넉지 못한 뒷바라지에도 공부를 잘해서 원하는 학교를 졸업했다. 아들은 치과 의사로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업을 했다. 곧 결혼할 딸은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서 애널리스트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각자 제 갈길 찾아가는 자녀들이 고맙고 대견하다. 아울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제목이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삶이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이다.

기도의 제목들

한우연 권사는 기도의 사람이다.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쓴다. 그가 매일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다. 우선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교회를 위해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절로 나오는 기도가 있다. '주여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이다. 성숙한 믿음으로 성도들이 용납하고 배려하고 관용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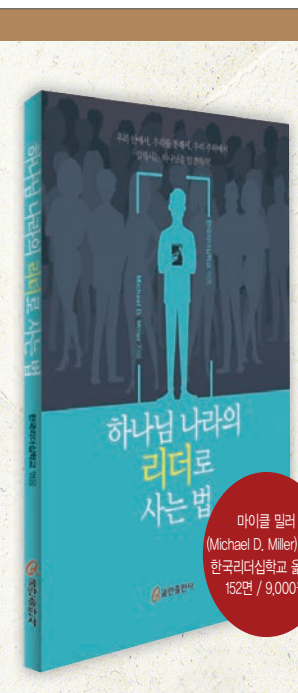
둘째로 직장을 위해 기도한다. 그에게 직장은 직장이상이다. 사역의 현장이요 헌신의 대상이다. 직장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의 삶을 산다. 직장을 통해서 얻는 급료로 살림을 꾸리고 십일조, 감사헌금을 드림을 늘 감사한다. 그래서 직장과 장애우들을 위해 기도한다.

셋째로 자녀들의 삶이 기도의 제목이다. 기도 응답으로 세워진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아울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넷째로 "기쁜 우리" 교회 소식지를 위해 기도한다. 한우연 권사가 소식지 발행에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전도의 문을 열고,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큰 힘이 되는 소식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강태광 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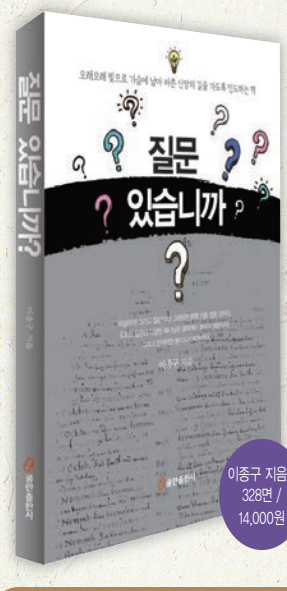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사는 법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라! 한국리더십학교의 필독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 세 가치 차원의 놀라운 비밀. 세상과 교회로 이분화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리더로 쓰임 받을 수 있다.

마이클 밀러 (Michael D. Miller) 지음, 한국리더십학교 옮김 / 152면 / 9,000원

추천 김지철(소망교회 담임목사) 임성빈(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이승구(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오래오래 빛으로 가슴에 남아 바른 신앙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책

질문 있습니까?

저자 이종구 목사는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강의한 저자는, 성경에서 대표적인 하나님의 질문 6개와 사람의 질문 5개를 살펴보면서 의심하고 질문하고 대답을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 바른 신앙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준다.

이종구 지음 / 328면 / 1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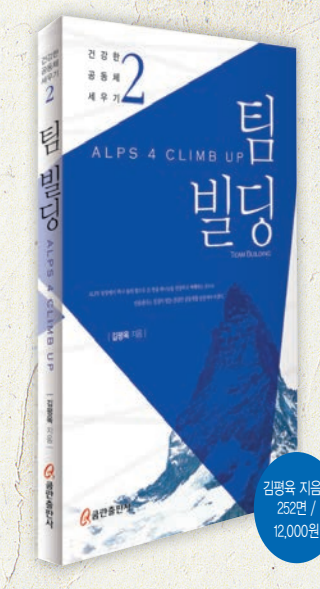
팀 빌딩

TEAM BUILDING

건강한 공동체 세우기 시리즈 2

이 책은 골로새서 3장 11-17절 말씀을 본문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을 관찰한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있는 공동체를 세우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한다. 우리 공동체의 건강지수를 알아보고 공동체에서 나의 건강지수를 알아보는 코너도 있다.



김평욱 지음 / 252면 / 12,000원

- 1장 건강한 공동체 (A.L.P.S.)
  - A-Appreciation(감사)
  - L-Love(사랑)
  - P-Peace(평화)
  - S-Service(섬김, 예배)
- 2장 건강한 공동체의 기초 (4 Foundations)
  - Faith(믿음, 신앙의 근본)
  - Fruits of Holy Spirit(성령의 열매)
  - Forbearing one another(서로 용납)
  - Forgiving each other(피차 용서)
- 3장 건강한 공동체 세우기 (C.L.I.M.B.)
  - C-Caring(보살핌)
  - L-Listening(소통)
  - I-Intercession(중보기도)
  - M-Mentoring(멘토링)
  - B-Boundary(경계)
- 4장 건강한 공동체의 정상 (U.P.)
  - U-Unity(연합)
  - P-Passion(열정)

한글인터넷주소 쿰란, 쿰란출판사 홈페이지 www.qumran.co.kr 주소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6 ☎ 02-747-1004 쿰란출판사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CMM Since 1996

의료비 대책 세우셨습니까?

CMM 기독의료상조회는 의료비 나눔을 통해 의료비 걱정을 해결합니다.

CMM 기독의료상조회는 성경적인 삶을 사는 4만여 성도들이 참여해, 짐을 서로 지라 (갈 6:2)는 성경 말씀에 따라 의료비 나눔과 중보 기도로 서로 도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로고스선교회 산하에서 1996년에 시작된 CMM 기독의료상조회는 지난 23년 동안 문제없이 의료비를 지원해왔으며, 소수민족 단체로는 유일하게 미 보건복지부 산하 CMS(Centers for Medicare&Medicaid Services)로부터 승인받은 의료비 나눔 사역 단체입니다.

23년 역사의 CMM과 함께하는 우리의 미래는 건강합니다!

- 저렴한 회비로 다양한 의료비 지원 (질병당 $150,000)
- 미국 내 의사나 병원 제한 없이 지원
-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 골드플러스 회원은 건강검진비 지원 ($500/1년)
- 새 회원 소개 시 회비 크레딧을 주는 Member Referral 제도
- 장례비 보조를 위한 Life Plan (사망시 평균 회비의 100배 지원)
- CA 샌디에고 인근 라모나 기도원/쉼터 이용시 할인 혜택

새 회원을 소개하면 회비 Credit을 드립니다.

Life Plan
회원 사망시 장례비* 지원
*평균 회비의 100배

프로그램	Gold Plus	Gold	Silver	Bronze
1인	$175	$135	$80	$40
2인	$325	$260	$160	$80
3인 이상	$425	$385	$240	$120
본인부담금(1인당)	$500/Year	$500/Incident	$1,000/Incident	$5,000/Incident
지원금/질병당	$150,000	$150,000	$150,000	$150,000

기독의료상조회는 의료 보험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역** 입니다.
비싼 보험료, 높은 디덕터블로 꼭 필요할 때 도움 받기 힘든 일반 의료보험과 비교해 보세요.

CMM 기독의료상조회, 알면 알수록 놀랍습니다.

저렴한 회비
월40불부터 가입 가능
(자녀 1명만 내면 나머지 자녀 무료)

낮은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이상 의료비 할인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다양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의사비, 검사비, 치료비, 응급실, 처방약, 임신 및 출산, 입원/수술비 등

골드플러스 건강 검진비 지원
매년 $500 건강 검진비

의료비 지원금
질병당 $150,000

Burden Sharing
15만불 이상 의료비는 전 회원이 함께 나눠 100만불까지 지원 가능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cmmlogos.or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MM Since 1996 기독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Owned by Logos Missions, Inc.
52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대표전화 773-777-8889 FAX 773-777-0695

CMM 캘리포니아 가입문의:
직통: 714-333-7487 Email: sungaeshin
캘리포니아 사무실 :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인터넷가입 www.cmmlogos.org

CMS 승인 기관